

# 꼬여만가는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감정평가 잘못됐다” 감사 요청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탈락

전남도의 핵심 혁신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가 잇따라 터지는 악재로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J프로젝트 구성지구 및 F1(포뮬러원)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문제를 놓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데다, F1 경주장 일대를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 “구성지구, 감정평가 잘못됐다”

=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 공사는 최근 감사원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구성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부지 소유권자인 농어촌공사간 맺은 양도·양수 협약에 따라 진행했던 감정평가 결과가 납득하기 힘든 만큼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가려달라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와 개발 시행사는 각각 두 감정평가기관(㈜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제일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부지 가격이 각각 3.3㎡당 2만2149원, 2만 161원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감정가

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게 농어촌 공사측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감정가가 해당 부지 일대 공시지가의 절반 가격인데다, 실거래가와도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설불리 양도·양수를 하기 힘든 입장”이라며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양도·양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또 F1 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와 농어촌공사간 맺은 협약에 따라 F1 경주장 부지(188만3000㎡·56만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한국 감정원이 의뢰를 받고도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 조속히 재감정에 나서줄 것을 시정·권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은 양도·양수자의 입장 차가 커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해 평가하기 힘들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의뢰 협약 해지 및 반려 통

보’를 했다.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각종 개발계획 진행이 힘든 만큼 결국 전남도가 오는 5월 구성지구 첫 삽을 뜨고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아울러 경주장 준공도 소유권 이전 지연 등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배제=전남도가 F1 경주장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자문회의 예비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배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는 1976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영암군 삼호읍 일대 11만3800㎡부지에 고품질 자동차부품센터와 연구개발센터 등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전남도는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인 138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 번 탈락하면 같은 사업으로는 2년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F1 경주장 일대 개발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민일보

- 김종우



## 광주전남중기청장 양봉환씨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에 양봉환(한국) 중소공인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양 신임 청장은 전북 정부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공업진흥청 사무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금융지원과장·정책총괄과장·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소상공인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총식 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승진·발령됐다. (관련기사 8면)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광역시 ↔ (주)네온펭귄, (주)조이넷+(주)문화콘텐츠기업 투자 협약 2011. 3. 8



DA Signing Ceremony between Jeollanam-do, Yeosu City and Daesan MMA Corp. 2011. 3. 8

전남도와 여수시, 대산MMA(주)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인조대리석과 자동차 부품 등을 통한 생산하는 공장을 여수 호남석유화학 부지 내에 건설키로 하

〈전남도 제공〉

MMA 제품은 2013년부터 연간 9만 80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MMA는 인조대리석으로 국내에서 3개 기업이 생산중이며, PMMA는 자동차부품, LCD·LED 도광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 3개사가 생산중이다.

도는 대산MMA 공장이 준공되면 정규직 55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연간 1600명 이상의 간접고용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입 대체와 수출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국내 연관산업 경쟁력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수 호남석유화학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활용해 한 곳에서 1차적으로 MMA제품을, 2차적으로 PMMA제품을 생산하는 수직계열화 공정을 실현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지정, 파격적인 감세혜택과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3개 업체 와의 협약으로 7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찰수사기자 bungy@kwangju.co.kr

## 여수에 세계최대 첨단소재 공장 짓는다

### 전남도, 대산MMA(주)와 2800억 규모 MOU

여수에 첨단소재 분야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대산MMA(주)의 코요아마 료이치·이안기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00억 규모의 투자 협약(MOA)을 체결했다.

## 광주도 170억 투자 유치

### 市, 애니메이션·3D 제작업체 3곳과 협약

애니메이션과 3D 제작업체 3곳이 광주에 1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8일 문화산업 관련업체인 (주)네온펭귄과 (주)조이넷, 리얼디스퀘어(대표 박영환)와 각각 투자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네온펭귄은 9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네온펭귄은 지난 2006년 설립된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업체로, 그동안 2D 및 3D

작품 26편을 기획·제작했으며 특히 미국의 TV 시리즈물인 ‘ZEVO-3, Dora’s Explorer Girls’를 제작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조이넷과 리얼디스퀘어는 을 상반기 중 합작법인 ‘HM광주 법인’을 설립,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이넷은 미디어서버 원천기술인 스트리밍e러닝 솔루션, IPTV 서버 스파키지 등을 개발했으며, 광주과학

기술원과 공동으로 촉감콘텐츠 스트리밍을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리얼디스퀘어는 일본 애니메이션인 ‘이너즈 마 일레븐’ MBC의 ‘아마존의 눈물’ 등을 3D로 컨버팅한업체로, 미국 디렉스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지정, 파격적인 감세혜택과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3개 업체 와의 협약으로 7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서 역대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시

16일~18일 DJ센터서…獨·美 등 174사 참여

도로 치러진다.

전시회에선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OCI(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KCC,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LS 엠티론, 금호타이어 등이 참여하

며, 해외에선 독일과 호주 등이 호주관과 독일관을 각각 운영한다.

전시장 야외에서는 태양광 트레이커(발전기) 태양을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주적장치)와 태양열 집열기 등이 전시되는 등 관객들에게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전세계 31개국에

서 170명이 넘는 국제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 전시회 참가업체와 1대 1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새 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장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솔라텍 월드 2011’, ‘2011 국제 해상풍력 심포지엄’, ‘바이오에너지 코리아 컨퍼런스 2011’ 등 국제 컨퍼런스 3건과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세미나’ 등 10여건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미래 기술동향과 시장을 전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공인받음\*

자격증급별	개 강 일 시 (과정별)	수업기간 (24주)
1. 한자지도사 3급	• 토요일 오전반: 2011.3.19(토) 09:30 • 월·목 오후반: 2011.3.21(월) 14:00 • 월·목 아간반: 2011.3.21(월) 18:20	2011.8.27 (96시간) 2011.6.24 (96시간) 2011.6.24 (96시간)
2. 한문지도사 2급	• 월·목 오전반: 2011.2.21(월) 09:30 ※ 2011.3.3(목)까지 추가모집함	2011.5.19 (96시간)
3. 한문지도사 1급	• 금요일 오전반: 2011.3.18(금) 09:30	2011.8.26 (96시간)
4. 한문지도사 특급(총장)	• 토요일 오후반: 2011.3.26 수료 ※ 2011.4.2(토) 개강 예정	2011.9.10(금) (96시간)

\* 과정별 지도교수 내분이 명강의 합니다.

● 모집기간 : 2011. 02. 18 ~ 2011. 03.21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5명

● 수 강 력 : ₩350,000 (농협 : 175375-56-065137)

● 자격의 활용

■ 방과후 학교 강사 ■ 학원설립 및 강사 ■ 각종 사회교육기관 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자격취득  
국·한문 훈용급수 (고급~중급) 자격취득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366-9666, 367-8666, 원장 011-607-6292

▶ 접수처 : 광주·서구·농성동 633-28 (건강관리협회 부근)

국가공인자격관리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연수원

## 국비지원/일반인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 ★ 월빙(참살이) 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3월 [5일(토) 주말반] 大 개강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WWW.egosi.co.kr

###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 ◆ 언제든지 청강 환영!